

정에는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졸업 간호원도 학생 간호원처럼 rotation 하면 만사를 부패케하는 권태로움은 없다고 본다. rotation 하는 방법이나 기간에 대한 세심한 연구하에 음

직이면 학생때의 실습 경험보다 몇 배로 유익하고 값진 배움의 가치가 있다고 졸업한 지금 절실히 느끼고, 또 자기의 적성에맞는 전공분야를 택 할 수 있다고 본다.

〈간호원 상은 바람직한가?〉

연세대학교 교수, (본회 회장)  
전 산 초



간호교육자가 본  
문제와 과제

목 차

- |  |   |
|--|---|
| <p>I. 서론</p> <p>II. 교육자가 본 간호원의 "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간호의 철학을 지닌 "상"</li> <li>2. 자발적인 윤리관을 지닌 "상"</li> <li>3. 현대적 지도자의 자격을 지닌 "상"</li> <li>4. 인간의 정서적불균형을 조화시</li> </ol> | <p>키는 능력을 지닌 "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5. 연구심과 창의력을 지닌 "상"</li> <li>6. 실제적인 간호활동면에 있어서의 간호원의 "상"</li> <li>(1) 전인간호와 지역사회간호</li> <li>(2) 재활간호의 함축</li> </ol> <p>III. 문제와 과제</p> |
|--|---|

## I 서론

이렇게 여러분을 모시고 제 뜻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교수협의회 준비위원장을 비롯한 준비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제가 간호교육의 혁신입니다. 요즈음 이와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연세대학교에서 "고등교육의 개혁"이라는 International Symposium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계속 참석하면서 느낀바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오늘 저의 주어진 과제라고도 생각이 들어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이 시대는 정말 급변하는 시대라는 것을 새삼 다시 한번 느꼈으며 전문직 교육을 자처하려면 부득이 개혁이 오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다는 긴박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초조함을 더욱 느꼈을

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는 개혁이란 것은 어떤 한 사람의 주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협의회와 같이 모여 협의하고 논의하고 서로 연구하여 협심해 나가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간호교육의 혁신을 가져오려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의 뜻을 모아 합의된 형식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셋째로는 이 혁신이란 것이 어떤 무슨 발명이나 새로운 창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보다 앞서서 상호접촉하는 가운데서 즉 교육자와 교육자의 접촉, 행정가와 교육자의 접촉, 학생과 교수의 접촉, 현 전문직 간호원과 간호교육자와의 접촉등 이러한 접촉에서 이해하고 필요성을 느끼는데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넷째로는 대학이란 것, 교육이란 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존재하며 또한 지역을 초월해서 존재한다고 느낀 것입니다. 세계 각국 학자가 한자리에 모여 같은 목적과 방향을 향하여 토의하는 것을 볼 때 저는 그것을 느꼈은 것입니다.

또한 교육이란 것은, 대학이란 것은 “모든 power 를 초월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시대와 지역과 어떤 power 를 초월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지에서만이 교육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하는 네가지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저는 이러한 것들이 바람직한 간호원의 상을 이루기 위한 간호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참작될 귀중한 방안이 아니겠는가 생각되어 여러분에게 서론적으로 말씀 드린 셈이 되었습니다.

## II 교육자가 본 간호원의 “상”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오늘 저에게 주어진 제목이 간호원의 상은 바람직한가? 에 대한 “교육자가 본 문제와 과제”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바람직한 간호원상은 이러이러해야겠는데 거기에 미달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가 되겠으며 또한 과제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 요소가 바로 과제가 아니겠는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을 바로 아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째 단계인 동시에 참말로 중요한 point 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교육학자 Tyler 는 간호교육자들이 하도 그 바람직한 간호원상을 이룩하기 위해서 교육하는데 애를 쓰며 그들의 이상을 찾아 헤매는 것을 보았을 때 한편 협조하는 뜻에서도 한편으로는 빙자하는 뜻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호교육자들이여 당신네들이 아무리 이상적인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학생

들이 실습하는 장소에서 일하는 기성간호원보다 더 훌륭하고 바람직한 간호원을 만든다는 것은 허공을 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임상에서 일하는 간호원의 상이 가장 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육자가 당면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호학생을 잘 가르치는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여기 못지않게 기성 간호원의 재교육도 중요하므로 양자가 병행되어야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1. 간호의 철학을 지닌 “상”

첫째 바람직한 간호원의 상의 제일 중요한 것 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생각하는 상입니다. 얼마 전에 저의 친구들이 모임 기회가 있었는데 친구들중 유명한 사회학자가 말하기를 “우리 한국인은 국민 하나하나로 볼 때 굉장히 두뇌가 좋고 우수한 국민들인데 여기다가 우리나라도 국교를 가지고 있어 정신적으로 통일되고 지배하는 힘이 있었다면 훨씬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할 수 있고 그야말로 국제적으로 leadership 을 장악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국민적 협력도, 통일도 잘 됐을 것인데 유감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간호원들에게도 간호학에 대한 확고한 생각, 철학, 신념 또는 이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전문직 간호사업이 훨씬 발전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간 생각하는 상, 간호원이 왜 생각을 해야 되겠느냐?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한가지 이유를 붙이겠습니다.

### 2. 자발적인 윤리관을 지닌 “상”

“간호학은 인간을 위해서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라고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의 마

음속은 알 수가 없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심오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생각이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야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지요. 인간을 위해서 있는 학문이요, 직업이라면 거기에는 윤리관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윤리관이라고 하면 우리 머리속에 직감적으로 생각나는 것은 환자방에 가서 앉지마라, 먹지마라, 복장은 무릎밑에 오게 입어라, 손톱에 칠하지 마라, 반지도끼지 마라 무엇무엇 하면 안된다 등 부정적인 윤리를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저는 그러한 윤리관을 이야기 할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윤리관이란 A의 것과 B의 것이 각각 다르겠지요. 하여간 제가 생각하는 윤리관을 말씀드리면 이것이 여러분의 윤리관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사람이 가장 귀한 존재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확고하게 인식해야 되겠고 즉 인간의 존엄성을 인식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 둘째로는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인간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인간을 위해서 봉사를 하되 무한대의 봉사를 해 보겠다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무한대의 봉사를 어떻게 하느냐 보수를 받지도 말고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봉사는 댓가를 바라고 하는 봉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엔 저 사람이 봉사를 하고 있는가 하고 보면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고 있고 또 저 사람이 봉사를 하고 있는가 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 하고 있었어요. 또 그 외에도 가치각색의 형태의 봉사가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봉사가 아니라 제한이 없는 무한대의 봉사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 봉사했어도 원망이나 저주와 또한 비난

을 받을 경우도 있을지 모릅시다만은 우리의 봉사는 한계가 없는 봉사라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이러한 무한대의 봉사를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봉사는 누가 시켜서 하는 봉사가 아니라 자발적인 봉사여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봉사의 행동은 큰 것에서 부터 시작하여 지극히 적은 procedure에 이르기까지 자발적이어야겠고 피동적이어서는 아니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입장에 설 것 같으면 대학에 간호학과 정도 필요없을 것이고 전문직이란 이름을 가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윤리관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확립돼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인간을 위해서 일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윤리관이란 흔히 생각할 때 현실과 동떨어진 것 같이 생각하며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현대인은 더우기 젊은이들은 자기의 신념에 따라 움직이지 피동적으로나 명령에 따라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지성인은 자기 마음 가운데 어떤 신념이 있을때 움직이는 것입니다.

지난번 연세대학교의 학생지도 위원회에서 대학생을 어떻게 하면 잘 지도할 수 있을까? 하는 Servey의 결과를 보고 그중에 제가 한가지 중요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즉 “전공과목에 대한 흥미도를 측정하는 항목에서 학생들의 흥미도가 제일 낮은 과가 간호학과였습니다.

물론 왜 그런지 follow up study를 해 봐야 알겠지만 하여간 제 추정으로는 간호학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 학문을 해야 하나? 또 나는 무엇을 해야겠는가? 왜 해야겠는가? 그 마음 가운데 철학이나 가치관 또는 신념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

리에게는 가치관, 윤리관, 간호의 철학이 확립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생각하는 것은 간호학에 대한 확고한 개념과 이론적 체계가 세워져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당장 완전하게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학년이 낮으면 낮은대로 차차 자기의 학습경험과 지식이 축적되어 모르는 사이에 완전한 것으로 쌓아져 올라가는 것입니다만 자기 나름대로의 간호의 이념을 지닐 수 있는 간호원이 바람직한 상이 아니겠습니까?

### 3. 현대적 지도자의 자격을 지닌 “상”

틀째로는 간호원의 상은 어떤 지배나 어떤 추종의 위치에 서 있어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으므로 leadership이 형성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지배하고 자기 중심으로 지배하는 그러한 지도자를 생각하실 줄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는 그것이 아니라 인간의 잠재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북돋아 주는 능력을 가진 leadership입니다.

인간의 잠재능력이란 학생인 경우에는 그들에게 내재한 발전적 요소를 말하는 것이고, 인간인 경우는 생명의 위협을 당할때 소생할 수 있는 치유의 요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leader는 인간의 잠재능력을 북돋아 주어서 발전할 수 있고 자랄 수 있고 발휘할 수 있고 소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러한 leader가 되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미래학자의 이야기입니다. 벌써 우리들의 시대는 독재나 어떤 힘으로 사람을 지배하려는 leader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잠재능력을 북돋아 주어서 개인이나 사회집단이 마음껏 자라고 발전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때까지 이끌어 줄 수 있는 leader를 이 사회는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호원은 그러한 leadership을 지닌 leader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 4. 인간의 정서적 불균형을 조화시키는 능력을 지닌 “상”

셋째로 또 하나의 바람직한 간호원의 상을 그려 봤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일해나가는 데 있어 두가지 기능이 있다고 어떤 사회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즉 그 목적을 위해서 drive해나가는 기능을 Instrumental function이라 하고 또 하나의 기능은 이 Instrumental function이 목적을 향해 활동해 나가는 데서 파생되는 정서적 불균형을 조화시켜 주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 양자의 기능이 원활히 이루어질 때 목적은 달성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Seminar를 해나가는 경우 Seminar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나와서 강연하는 사람의 기능은 Instrumental function이고 그 다음에 강연하는 장소와 환경조성등 목적달성을 원활히 하기 위한 여러가지 준비를 하는 기능을 expressive function이라고 했습니다. 간호의 function은 이러한 Expressive function이라고 하겠으며 치료의 goal을 향해 가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emotional unbalance를 조화시켜주고 이것을 북돋아 주고 목적을 향해서 이끌어주는 그러한 function이 Nursing function이고 치료를 하는 의사의 기능이 Instrumental function이 될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인간들은 지식이 발전하고 지능이 높아가기 때문에 이 emotional unbalance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들이 더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emotional balance를 조화시켜 주는 expressive function이 primary function이 될 것이고 치료를 북돋고 움직일 때는 의사의 기능

이 instrumental function 이 primary function 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instrumental function 과 expressive function 이 잘 조화될 때 goal 에 도달할 수 있고 간호의 기능은 목적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것은 instrumental function 을 하는 사람이 expressive function 의 가치를 인정하여 효과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때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 우리는 여기서 좌절되지 말고 인정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일이 또 하나의 우리들의 과제일 것입니다.

## 5. 연구심과 창의력을 지닌 “상”

우리들은 일상 행하는 모든 행위에 있어서 평가하는 면이 있어야겠습니다. 오늘을 실패, 오늘의 미달, 오늘의 분실을 내일에 또 가져온다고 한다면 이 직업은 발전이 없을 것입니다. 항상 문제점의 source 들 밝히고 연구하여 시정하는 습성이 형성되어야 하지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든 다른 학문들이 발전했느냐, 그들의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초월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연구한 결과로 그들의 학문은 발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간호원의 상에도 크건 작건 자기 문제를 바로알고 지식이 뒷받침을 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연구하는 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다음 간호원의 실제면에 있어서의 “상”을 그려봅시다.

## 6. 실제적인 간호활동 면에 있어서의 간호원의 “상”

요즈음 간호학에 있어서 잘못하다가는 gap 에 빠지기 쉬운 그러한 시기입니다. 시대가 발전하

고 모든 지식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간호의 개념은 변천하고 간호학도 발전해 갔습니다. 이 발전되어 가는 개념과 과거의 개념이 미치지 못하는 실제면에 있어서 그 양자간의 gap 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깊이 자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간호사업에 있는 약 70%이상의 문제가 우리들 자신에게 있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 여간 이러한 실제면에 있어서 우리는 지엽적인 생각보다 원리에 입각한 실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겠으며 항상원리를 실천함으로써 말미암아서 손이 부족하고 우리들의 모든 제도가 부족한 이 마당에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 (1) 전인간호와 지역사회간호

간호의 실제적인 면에서 다시 생각할 것은 간호란 어떤 한 장소에 고정돼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역사회에 나갔을 때는 지역사회에서 간호원의 기능을 다 해야되고 가정에 가서는 가정에 있어서, 또한 학교에 나가서는 학교에 있어서, 또는 병원에서는 병원에 있어서 우리의 기능은 모든 인간에게서 요구될 수 있고 쓸 수 있도록 우리들은 준비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간호의 요구도가 높아가는 시대는 과거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과거 Florence Nigthingale 은 간호란 인간의 질병이 자연치유되는 것을 보다 빠른 시일내에 보다 완전하게 회복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그것이 가장 옳은 생각이었고 만족하고 정당한 생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계의 생각이 간호라는 것은 의사가 치료하는 것을 보조하는 것이고 거기에 병실관리예 약간

의 지식이 첨가돼 있으면 그것이 훌륭한 간호원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간호는 인간중심의 전인간호를 하는 시대에 왔습니다만은 간호의 생각은 또 앞질러 옮겨져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간호를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간호학이 무한대로 발전할 수 있는 소망의 시대라고 하겠습니다.

간호는 인간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며 또 인간 스스로가 충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들이 지닌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더 나가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기대하는 또 하나의 간호원상은 대인관계를 잘 이룩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즉 인간과 인간과의 조화를 잘하는 상입니다.

## (2) 재활간호의 함축

문제로는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해서 다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자리에 돌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박내동이 시집을 보내느니 내가 가는 것이 낫겠조”라는 말이 있듯이 환자가 그것은 자기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일에 어려움이 큰 간호문제를 가지는 까닭입니다. 하여간 그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는 것이 간호의 핵심이며 이것을 하는 간호원의 상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활을 위한 간호가 여기서 필요한 것입니다.

재활간호라는 것은 일조일석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구한 계획과 인내와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어린 여학생이 갑자기 이유를 모르는 척추

Abscess가 생겨 수술을 해서 창구는 아물었습니다. 다만 그러나 재활간호의 계획이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육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육창이 심하니까 그다음에 아이를 엮어서 flat하게 누여 몇개월을 지낸후 퇴원했습니다. 퇴원후 3-4개월이 지나 이젠 이 아이가 wheel chair라도 타고 앉아서 일상생활 활동과 자기나름대로의 성장할 그러한 과정을 가졌어야 할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이미 뼈가 완전히 강직되어 wheel chair를 타게 구부러지지 않게 되어 버렸습니다. wheel chair에 앉으려 해도 항상 서 있든지 똑바로 누워있어야만 할 자세로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애처롭게도 눈물을 머금고 다시 골반과 뼈를 부수어 wheel chair에 앉히울 수 밖에 없는 수술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 이 경우 간호계획에 재활간호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던들 이러한 결과가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재활을 위해서 도와주는 힘이 간호원에게 요구됩니다.

## III 결 론

### 문제와 과제

그다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 다만 Source를 밝히고 자기가 할일에 대해 평가하고 거기서 더 연구하여 시정함으로 오늘에 부족을 내일에 완전한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간호원의 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려던 연구에 대한 지식과 해보려는 열성이 필요합니다.

이와같은 우리의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들의 일상 직업적활동속에 오늘의 미흡함을 내일에 충족시키

은 저래의 숙원이었던 남북의 대화를 시작한 이때 대한간호 협회는 회원 단합 필기대회를 개최하고 국가와 혼연일체가 되므로서 역사적 대명제인 민족통일을 성취할 수 있다고 보아 적시에 단안된 10월유신과 이에 따른 국민투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채택한다.

## 결 의 문

- 一, 자유 민주주의의 한국적 토착화를 이룩키 위한 10월유신 헌법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 一, 새차원의 민주체제를 정립할 수 있는 유신헌법 국민투표에 기권없도록 적극 제공한다.
- 一, 새마을운동에 앞찬 추진을 위해 회원의 단합과 참여를 재삼 촉구하며 적극 성원할 것을 다짐한다.

대 한 간 호 협 회 장 전 산 훈

는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가 연속적으로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어진 과제라고 보았습니다.

그다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해야 되겠느냐 첫째는 각자 개인들 우리 하나하나가 이러한 것을 해야하지 않겠는가 즉 우리들 각 개인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했고

둘째로는 단체적으로 어떤 organization이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여 그 초점을 집단적인 것으로 옮겨 왔습니다.

첫째 병원행정자와 간호원에게 초점을 두어 보았습니다. 시대가 변천하고 모든 학문이 발전하는데 간호도 같이 발전하려고 할 것 같은데 어디서 발전할 근거를 얻어야겠습니다. 사실 현하 간호원의 입장에서 볼때 이점에 대해 염려가 됩니다. 졸업후 경년 년한에 따라 그의 지식 수준과 그의 행동이 발전해야 되겠는데 졸업을 계기로 차차 그 수준이 떨어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면 이 문제는 어디서 메꾸겠습니까?

시대와 학문에 합리화한 Inservice Education 을 부단하게 해야 발전할 것이며 사회적 요구에 적합한 전문직업인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간호교육자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대학이란 것은 그 기능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교육의 기능, 사회봉사의 기능, 연구의 기능입니다. 이 세가지 기능을 다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다하려는 대학을 위해 학회는 이것이 이들의 실제로 학문연구로써 문제해결을 할 수 있게 연구를 양양하고 자극하고 뒷받침해 주어서 우리의 장애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가 학회에 있지 않겠는가 생각했습니다.

세째로 이러한 모든 교육의 개혁이라는 바람직한 간호원 상을 향한 교육의 혁신이나 개혁의 과제를 앞에 놓고 그 초점을 행정자들에게 옮겨 봅니다. 먼저 행정자가 이러한 개혁을 받아들일 성의와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책임은 모든 간호교육자에게 돌리면서 동시에 화살을 저 스스로에게 돌려봅니다. 아무리 이론이 좋다 하더라도 이 어려운 바람직한 간호원의 인간형성을 위한 간호교육은 간호교육자들의 영원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